

합격기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행복한 지옥



김 추

- 1980년 12월 생
- 민족사관고등학교 1기 입학
- 중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 2010년(제52회) 사법시험 합격

I. 시작하는 말

영광입니다. 지금은 아내가 된 여자 친구가 제50회 사법시험 합격기를 고시계에 기고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뒤따라 합격하여 참으로 다행인데, 이렇게 고시계에 합격수기를 실을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이미 연수원 과정을 거치고 있는 친구들은 합격축하와 함께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지만, 그 지옥에 얼마나 가고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법학전공자이고 어찌됐든 오랜 기간 고시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의 방법이 처음 사법시험 준비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합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준비 기간이 길든 짧든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먼저 시간 순으로 수험과정을 말씀드리고 나서 고시생으로서 제가 궁금해했던 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질문 받았던 점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경험이 수험생 여러분의 수험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지옥으로 떠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II. 2005년 1차 합격, 부진정 수험생활

2005년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운이 좋아서 합격했던 것인데, 저는 이 때문에 사법시험을 만만하게 보다가 수험기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속속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공부하다 보면 합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공부하고도 합격하자 그런 생각이 굳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 제가 공부한 것은 객관식 판례 문제가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오자 공부할 분량 대비 배점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친족상속법과 경제법(당시는 표준점수제가 아니어서 비중이 컸습니다)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시험에 거의 판례만 물어보다시피 하는 바람에 다들 점수가 올라서 커트라인도 올라갔고, 저는 상대적으로 공부한 부분에서만 문제가 나온 셈이라 커트라인을 살짝 넘겨 합격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도 2차 준비를 적당히 남들 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했다니 남들처럼 떨어졌습니다. 초시는 과락이 한두 과목 있었고, 재시는 과락은 없었지만 평균 점수가 2~3점 모자랐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커트라인 부근에서의 평균 2~3점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점수를 조금만 더 올리면 합격하겠구나, 조문 몇 개만 더 적시하고 글씨만 더 좋았어도 합격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때로 돌아가서 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 후 저는 소위 해결이라는 것을 연달아 두 번을 했습니다. 첫 해는 총점 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8지선다형 문제가 처음 도입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었는데, 이 때는 민법에서 두 문제를 시간부족으로 풀지 못하였습니다.(같은 해에 여자 친구는 1차 시험도 어렵다며

열심히 공부해서 실전에서는 발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1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기본 3법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선택과목은 거의 다 맞추었는데, 선택과목 표준점수제가 도입되면서 선택과목 점수의 반영비율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만약 중전 방식으로 계산했다면 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도 변경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되었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 근처의 점수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공부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1차 시험도 떨어지면 1년이 지나가는 것이니 요령 피우느라 합격 여부를 운에 맡기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시기의 저는 몸은 공부한다고 가방은 메고 다니지만 합격할 만큼 열심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대로 놀지도 못하면서 스트레스만 받고 부모님께는 죄송한, 부진정 고시생이었습니다.

고시생이지만 그래도 월드컵은 봐야 하고, 가끔은 술도 마셔야 하고,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즐리면 자야하고, 매일 고시식당 밥만 먹고 살 수는 없는 일이고, 어떤 날은 아파서 공부를 못했을 것입니다. 누구는 게임에 빠졌고, 누구는 주식을 하고, 누구는 소개팅을 하고, 누구는 소녀시대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극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

니다.

부진정 고시생의 점수는 커트라인과는 불과 몇 점 차이지만, 커트라인이 변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가로막고 있어서 항상 커트라인 바로 아래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 벽의 소재는 피로움입니다. 피로운 것이 싫으니까, 힘든 것을 참기 싫으니까 딱 그 직전까지만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에도 동작을 반복하다가 힘들고 피로워지는 순간부터 근육에 자극이 되고 진짜 운동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피로운 지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공부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다면 피롭지 않고 합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로움을 참으면 합격할 수 있는데 왜 인생을 운에 맡기니까? 이 시간에도 피로움을 참아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벽 위에 있습니다.

Ⅲ. 로스쿨의 등장과 2009년 제51회 1차시험 합격

1. 군 입대 전 남은 기회는 동차뿐

차라리 큰 차이로 불합격했다라면 미련 없이 군대를 갔다 왔을 것이지만, 항상 한 문제 배점도 안되는 점수 차이로 불합격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동안 군 입대를 미뤘었는데, 벌써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입대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동차로 합격하지 않는 이상은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두 해걸이 후에 동차합격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차라리 바로 군대를 갔

다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면 선발인원은 훨씬 줄어 있을 것이고, 바로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법시험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할 자신은 있었지만, 동차로 2차까지 합격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서기에는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스스로 그만둘 수는 없어서 후회라도 없도록 하는 데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동차합격을 위해 1차 준비 기간을 최소화하고 2차 공부를 최대한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는 4시를 앞두고 있었기에 저도 2차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보조를 맞추어 정선균 강사의 행정법 사례강의와 박승수 강사의 민법 사례강의 등을 같이 들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지자 여자 친구가 공부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여자 친구가 이번에 합격할 수준을 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08년 여름 50회 2차 시험을 마친 여자 친구는 저의 전반적인 공부계획을 잡아주고 스터디 매니저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1차 공부는 10월 중순 이후부터 하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후사법 일회독을 하면서 암기사항 점검 및 모의고사 스터디를 하고 기본 삼법은 사례와 암기사항 스터디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때부터는 의욕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였으나 그 동안 암기해 둔 것이 워낙 없어서 힘들었고 결국 의도했던 수준을 달성 하지는 못했습니다.

2. 로스쿨의 등장과 제 1회 LEET 응시

선배의 권유로 제1회 LEET에 응시했습니다. 모의고사 1회분을 풀어 보고 시험장에 갔습니다. 제 느낌에 LEET는 공부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언어이해는 표준점수 67.2 백분위 97.5가 나왔고, 추리논증은 표준점수 75.4 백분위 99.7이 나왔습니다. 좋은 성적이었기에 선배는 모교 로스쿨에 원서접수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은 등록금도 너무 비쌌고, 여자 친구도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것이니 로스쿨에 갈 필요가 없다고 했고(하지만 나중에 제가 합격하고 나서 그때 왜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묻자, 아내는 제가 “재시생 수준의 실력은 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로스쿨을 가면 사법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되기에 로스쿨 원서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3. 사법시험 1차 합격

1차 시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예정보다 빠른 9월 중순부터 학원의 일정에 따라 1차 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진도강제를 위해 학원의 진도별 모의고사(only)반을 등록했습니다. 12월 중순부터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하루에 한 과목씩만 푸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미루지 않게 되고, 줄지 않고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선택과목은 국제법을 택했고, 추석특강을 이용해 원혜광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국제법은 모두 맞추었는데, 원혜광 강사의 두문자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의 권유로 모의고사를 풀고 나면 그 날 틀린 것은 그 날 오답노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1차 시험은 8지선다형으로 바뀐 이후로 하나를 알아도 확실히 알아야만 맞출 수 있습니다. 틀리고 한 번 보고 넘어가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꼭 예쁜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쓰면서 외우고, 그 중 이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기만 해도 그것이 오답노트입니다. 책에 표시를 해주거나 여백에 적어 두는 것도 그렇게 해서 반복할 수 있다면 오답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는 최신판례강의를 듣고 헌정사와 부속법령, 국제법의 주요 숫자가 나오는 단순암기사항과 오답노트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1차 시험에서 처음으로 안정적인 점수를 받고 합격했습니다.

저는 학원의 전국모의고사 성적표를 모아놓았는데, 불합격하던 해에는 이름을 실명으로 쓰지 않고 ‘영고생착’이라고 아무렇게나 썼던 반면에, 합격하던 해에는 실명을 써서 나름 진지하게 시험에 임했었습니다. 이것이 징크스처럼 되어서 학원의 2차 모의고사를 볼 때에도 부끄럽지만 답안지에 실명을 쓰고 비장한 각오로 시험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 1차 교재 중에서 추천할 만한 것은 원혜광 강사의 국제법 교재와 객관식 문제집, 권순환 강사의 민법핵심지문 총정리OX문제집, 차강진 강사의 헌법 10년간기출지문OX문제집 등입니다.

IV. 2009년 2차 불합격. 그러나 다시 주어진 기회

바로 학원의 성봉근 행정법, 황의영 상법, 이창한 민소법, 박승수 민법, 김정철 형법과 형사소송법, 김유향 헌법 3순환 강의를 들었습니다. 2차는 아는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연히 불안했던 것이 강의를 모두 듣게 된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 후에는 학원의 4순환도 등록해서 한 시간 분량이라도 매일 시험을 쳤습니다.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있지 않은 데다 공부시간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암기가 부족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답안지를 과목당 8면을 다 채우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6~7면 정도밖에 채우지 못했고 총점 2점 가량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자녀가 있는 기혼자는 상근예비역으로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제가 거기에 해당하게 되는 바람에(사법시험에 먼저 합격하고도 아직 고시생인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아준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2차 시험을 한 번 더 응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V. 2010년 군복무중 제2차 합격

합격자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독서실을 잡았습니다. 입대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발표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지 않은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났지만 울고 있을 시간도 없어서 울면서 공부했습니다.

훈련소 기간을 제외하고 학원 2순환

일정이 마치는 시기에 저도 2순환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3주 정도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때 공부한 것을 훈련소에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상법 사례목차와 암기사항을 독서카드에 적어서 가져갔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카드를 주머니에 넣어두고 잠깐씩 시간이 날 때마다 보았는데, 그 시간을 다 합해도 2시간이 안되겠지만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훈련소를 나와서 자대에 신병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휘관과의 면담 시간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는 것을 허가받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독서실이 문을 닫는 시간 이후까지 공부를 하기 위해 학원 심야 모의고사 + 비디오 강평반을 다녔습니다. 낮에는 박승수 강사의 민법 케이스만 모은 작은 책을 4개로 얇게 쪼개어 전투복 깡뚝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틈이 날 때마다 조금씩 봤습니다. 하루 종일 제설작업을 한 날이나 혹한기훈련 야간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도 몸이 너무나 무거웠지만 얼드려 자게 되더라도 꼭 독서실에 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최대한 시간확보를 하고 암기를 확실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강평은 성봉근 행정법과 이창한 민소, 박승수 민법 정도만 들었습니다. 심야반 강평까지 듣고 몇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다음 날은 저녁에 독서실에서 졸게 되어서 오히려 공부시간에서 손해를 보

왔기 때문입니다. 3순환까지는 이런 식으로 매일 진도별 논점 암기에 주력해서 공부해 나갔습니다. 4순환도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시간이 너무 없어서 포기하고 반복에 주력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반복한 자료는 김유향 헌법 암기자료, 박승수 민법 ZIP, 이재상 형법 사례집(이케바)과 김정철 내머리속 형법, 이창한 민소 사례집, 김정철 내머리속 형소, 성봉근 행정법 다이제스트, 아내가 다시 쓰다시피 해 놓은 2006년판 문갑 키워드 상법 등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암기사항 두문자나 특별히 외울 사항들을 작은 수첩에 적어놓고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험기간 내내 공부를 해도 다시 보면 또 처음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시험 1주일 전이 되어서야 이제 좀 봤던 것을 다시 본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휴가를 사용해서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시험 직전에 법전을 나눠주면 복도나 화장실에 나가서 마지막까지 책을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그냥 자리에서 해당 법전을 일회독 이상 하면서 주요 조문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조문을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조문 적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첫날 과목이었던 헌법은 7면을 채우고 나머지 과목은 모두 8면을 채웠습니다. 모르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때문에 잘 쓸 수 있는 부분까지 망치지 않도록 시간배분에 신경을 썼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제 느낌은 절대적으로 잘 본 것은 아니지만, 작년 보다는

확실히 잘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문제에서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었던 것도 잘 넘겼고 운 좋게 조문을 잘 발견해서 적시한 것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는 어머니께서 외할머니께 전화로 저의 합격사실을 알려 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외할머니는 이 때 덩실덩실 춤을 추셨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머니께서 며칠 전인 1월 9일 오전에 갑자기 쓰러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잠시 저의 외할머니의 명복을 빌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VI. 고시생활의 탐

1. 하루를 쪼개어 두 과목 이상을 동시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30분씩 오답노트를 보는 정도나 사례 하나씩을 보는 정도 이외에는 주로 공부를 진행하는 과목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반복(예습이든 복습이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복을 해서 암기의 단계까지 올려놓지 않으면 다음 순환에 들어갔을 때 기억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회사법만 여러 번 본다는가 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지금은 판사가 된 동기에게 예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그 친구도 저에게 한 번에 한 과목만 하라고 했습니다.

2. 필기구와 글씨

저는 2차 답안 작성용으로 펠리칸 M405만년필(EF축)을 사용했습니다.

만년필은 손에 힘을 빼고 쓰는 필기구라서 힘을 주어 써야 하는 볼펜과 달리 필기량이 많아도 피로가 덜합니다.

2005년 여자 친구와 함께 처음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당시 상당히 고가여서 망설였지만, 여자 친구와 커플링 대신으로 한 자루씩 장만했습니다. 펠리칸 M 시리즈 만년필은 가볍고 잉크 저장량이 많기 때문에 고시용 만년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 잉크를 충전하면 실전에서 하루치 답안지를 채우기에 충분합니다. 만년필에 적응하는 데는 수 개월이 걸리므로 시험 직전에 바꾸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형광펜은 에버그린에서 출시된 에센티 브라이트 시리즈가 일제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품질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좋고 독서실에서 뚜껑 여닫을 때 소리도 작아서 애용했습니다.

한 때는 저도 글씨를 못 써서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명필이면 플러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읽을 수 있는 글씨이면 합격에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내용이 중요 합니다.

3. 시간관리

아내가 공부할 때 썼던 공부시간 체크표 양식을 여러 장 복사해서 매일의 실제 공부시간을 체크했습니다. 스탑워치는 누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손으로 메모하여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스스로 몇 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지 목표 시간을 써 놓고 실제 공부시간과 비교해 보면서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보내려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원에 가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평일 퇴근 후의 공부시간은 두 시간 정도밖에 없었기에, 평일 공부시간을 모두 합해도 주말 하루 공부시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공부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합격의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4. 약

정확히 약은 아니지만 편의상 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을 쫓는 데는 과라나 추출 고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는 YA라는 음료수가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피로 회복에는 비타민 B군 위주의 비타민제가 효과가 좋았습니다. 애플 종류는 저에게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다이어트용, 수험생용이 가장 비싸고 용량도 적은 반면 헬스용이 가장 저렴하고 용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5. 답안작성요령

첫째로, 시간 안에 답안지를 8면을 충실하게 채워야 합니다. 순수하게 답안지 한 면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이 저는 12분이었습니다. 그러면 50점 배점마다 48분이 글씨를 쓰는데 들어가니까 12분 안에 문제를 다 읽고 답을 내고 개요를 짜야 합니다. 100점 배점의 실전에서 시험 시작 24분이 지나서 답안작성을 시작하면 저는 8면을 절대로 채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6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 써내려가야 8면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점마다 문제의 소재(문제집)-학설-판례-검토를 답안지에 쓸 분량으로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당연하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하고, 답을 도출하는 논리적 과정을 모두 짚어주어야 합니다. 논점을 암기해서 쓰는 것은 질문에 답을 내리는 논리적 과정에서 그 논점이 하나의 단계로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적시가 중요하다는 것은 무턱대고 관련 조문을 다 써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답안지에 어떤 문장을 썼을 때 그 근거가 법조문인 경우에 조문을 적시하지 않으면 아무런 근거 없이 우기는 것이 되어 논리적 과정을 뛰어넘게 되기 때문에 조문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물어본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 학원 강의

저도 학원 강의를 듣는 시간은 공부한 시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하고 암기하는 시간만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고, 학원 강의는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학원 강의를 듣더라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강의는 원혜광 국제법과 성봉근 행정법 2순환 및 리마인드 강의입니다. 저는 성봉근 강사가 사법시험 2차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방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논점박스 암기와 답안 구조 사안 포섭 등은 행정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리마인드 강

의가 대개 중요 논점을 짚어주고 정작 암기는 강의를 듣느라 공부시간도 부족해진 우리의 몫으로 남게 되어 오히려 독이 되는데 반해, 성봉근 강사의 리마인드 강의는 수 회 반복암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VII. 맺는 말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속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한 말이 주제넘은 것은 아닌지, 짧은 문장력 탓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제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동안 제 노력이 부족해서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것이 마땅했음에도 오늘 이렇게 되ң해서 딸에게 뽀뽀하고 상병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벗어 놓고 합격기를 쓰는 거짓말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변함없이 지원해주신 부모님, 장인어른, 장모님, 예쁘고 노래 잘하는 국민은행 강남대로지점 김송 계장님, 마지막까지 용기를 준 일경누나, 선준형, 동훈, 같이 스터디를 했던 영리, 성훈, 정광, 수정누나, 혜영누나, 윤석, 병훈씨, 지혜씨, 밥해준 지만이, 중혁형, '아빠 병사'가 상근병이 되는 제도를 만드신 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군지휘관님들, 그리고 저의 고시생활이 해피엔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딸 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